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의 시사점



| 목 차 |

- 1 서론
- 2 오마바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 3 오마바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산업 정책
- 4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 2008년 11월 4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부시정부에서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로 정권 변화. 또한 기존에도 상원 및 하원 의석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었지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루어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을 추가하여,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아젠더는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
- 오바마 시대의 미국 정부정책이 유럽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The Europeanization of America)¹⁾
- 본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공약 및 개별 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변화를 파악함. 또한 이러한 미국의 보건관련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영향력을 살펴봄

1) 오바마 당선이후 미국 정책 변화 : 이라크에서 미군 철군, 보호주의 무역정책, 중상층 및 기업에 대한 증세, 연방정부 재정지출 확대, 경제규제 증가, 노동조합의 힘 증가 등(PETE DU PONT. The Europeanization of America : What's ahead if Obama becomes president. .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7, 2008.)

2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

-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Obama)의 보건의료 아젠더와 매케인(McCain)의 아젠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²⁾
-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상이함. 메케인의 정책은 탈규제와 조세유인 수단으로 민간 의료보험시장 통한 건강보장 실현임에 반해, 오바마는 민간-공공간의 적절한 재정 부담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음

표 2-1. 미국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개혁정책의 주요 차이점

	오바마(Obama)	매케인(McCain)
전국민 건강 보장 목표 설정 여부	목표	목표가 아님
민간보험시장의 규제	단일한 국가 수준의 규칙	최소한의 주(State) 수준 규칙
의료혜택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역할	확대	축소
메디케어 및 SCHIP ³⁾	확대	축소
가족의 의료비용 부담	축소	확대
의료보장 수혜 요건	Children Only	None
질과 효율성 증진 수단	More	현재 체계와 변화 없음
10년후 의료보험 적용받는 비보험자	34백만	2백만명

2) Sara R. Collins JLN, Sheila D. Rustgi, and Karen Davis. THE 2008 PRESIDENTIAL CANDIDATES' HEALTH REFORM PROPOSALS: CHOICES FOR AMERICA: The Commonwealth Fund October 2008.

3) SCHIP :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오바마의 공식선거홈페이지(www.barackobama.com) 및 대통령 인수 위 홈페이지(www.change.gov)에서 표명한 보건의료 공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
 - 두가지 극단(Medicare, Medicaid 등 높은 조세부담으로 운영되는 정부 운영 보건의료 프로그램 ; 규제없이 운영되는 민간보험)으로 운영
- 보건의료 정책 방향
 - 전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체계 구축(To provide affordable, accessible health care for all Americans)
- 보건의료 세부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공약
 - ① 미국민과 기업에게 작동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아닌)
 - 보험회사들은 미국민의 사전적 건강상태(Pre-existing conditions)를 수용
 -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기업체 건강보험 조세 감면(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 제도 도입
 - 재난성 질환의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비용 인하
 - 대규모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 중 일부를 의료관련비용에 부담하게 하는 등 사용자(기업)의 부담을 유도
 - 개인과 소기업체가 보험 가입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공적 보험상품(Public plan) 및 다양한 민간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거래소(NHIE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립

건강보험 거래소(NHIE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케이드, SCHIP, 사용자(기업) 가입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이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기업체도 거래소를 이용하여,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함 · NHIE에서는 다수의 민간보험상품 및 새롭게 마련할 공적 보험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책정해 서는 안됨 <p>(자료원 : Holahan J, Blumberg LJ. An Analysis of the Obama Health Care Proposal: Urban Institute; September 22, 2008.)</p>

② 가구당 의료비 부담을 2,500달러까지 축소

- 타 선진국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 수입, 공공 프로그램에서 제네릭의약품 사용 제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제약회사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
- 병원으로부터 진료비용 및 질 정보 수집 및 공포
- 재난성 질환의 비용 감소
- 의료의 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반경쟁행위 조치 및 경쟁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시장 개혁

• 암검진, 주/지방 정부의 테러 및 자연재해 대비 강화를 포함한 예방 서비스 확대

• 주요 재원조달 방법

- 연간 250,000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부시정부의 세금감면을 원상회복하

고, 2009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유지하여 500억달러 ~ 650억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개혁 재원 조달

◆ 정책의 시사점 및 산업계의 영향

-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이후, 컨설팅업체인 Price Waterhouse Coopers의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책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이해당사자들의 영향정도를 제시하고 있음.⁴⁾
 - 본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오바마의 보건의료개혁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제약회사, 의료보험회사의 이익률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함

〈의료기관〉

- 현재 상황
 - 병원은 마진율이 괜찮으나, 비보상의료(Uncompensated care)가 증가하는 추세
 - 지불자(Payers)들은 입원환자 이용 비용 절감 지속화
 - 병원의 수익률 높은 지불자는 민간보험회사임. 오바마의 전국민건강보험 적용되면 민간보험사의 개인 고객 축소 예상

4) PricewaterhouseCoopers' Health Research Institute. Healthcare policy in an Obama administration: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universal coverage; November 2008.

• 긍정적 요인

- 더 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 비보상진료 축소, 더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비용 이전(Cost-shifting)⁵⁾이 줄어들면 가격책정에 투명성이 높아지며, 다수의 의료기관에 이익이 될 수 있음
- 연간 100억달러의 의료 IT 투자는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및 장기적인 비용 절감 도모
- 의사들의 조직화(그룹 개원 등) 권장 :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제고
- 소매 클리닉(Retail Clinic)⁶⁾이 1차 의료 부족 상황을 보충 :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혜택

• 부정적 요인

- 1차진료의 의사의 부족은 매스츄세츠 플랜에 따를 가능성이 높음 : Nurse Practitioner와 다른 의료제공자의 역할 확대. 의사들은 비의사의 서비스 역할 확대를 반대할 가능성 높음
- 소매 클리닉(Retail Clinic)의 1차진료의 갭(Gap)을 보충하며 변성 예상. 소매 클리닉과 관계하지 않은 의사나 병원의 수익 감소 예상
- 전체 인구가 보험 적용됨에 따라, 대학병원의 기부금 감소 예상
- 더 많은 사람이 메디케이드 수급받게 됨에 따라 원가 이하(Below cost)

5) 비용이전(Cost Shifting)이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의 낮은 수가를 민간보험 가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진료비)를 받아 의료기관이 수익을 매꾸는 것을 말함

6) 미국내 최근 파급되고 있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월마트 등 대형소매점내 Shop in Shop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Nurse Practitioner가 감기 등 경증 환자를 진료하고 약 처방함. Minuteclinic 등 기업화 되어 있음

인 경우도 많은 메디케이드 지불제도 적용이 증가

- 전국민 보험의 수가가 메디케어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병원의 평균 의료수익 감소 예상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중복 검사 필요성이 줄어들어 따라, 의료기관의 특정 수익 감소

〈민간의료보험회사〉

• 현재 상황

- 민간상업보험간 합병 가속화
- 경기침체기로 민간보험 가입자수 감소 가능
- 의회의 메드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 Choice 등) 수가 감소 예상 : 일부 보험사가 일부 지역의 건강보험상품 판매 포기 예상
- 민간보험 상품들의 아바마의 보건 의료 세부정책과 동조 : 보장이슈 (Guaranteed issues)⁷⁾, 지역사회 위험율 적용(Community Rate)

• 긍정적 요인

- 더 많은 수의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입 증대 의미 : 자영업자 및 관리 행정비용 대비 수익 증대 의미
- 민간보험회사가 혁신적 보험상품 제공을 통해 전국민건강보험거래소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통한 신시장 형성
- 대형 보험사가 소규모 보험사를 인수하여 시장점유율 제고
- 더 많은 사람이 보험 적용됨에 따라 병원 응급치료를 받든 사람 수

7) 과거의 건강상태에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

감소 예상 : 병원의 비용 감소

- 전국적 개혁을 통해 주(State)별 개혁을 대체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 증대
- 의료 IT 기금 증대

● **부정적 요인**

- 오바마의 보장이슈 및 지역사회 위험을 적용 선호 : 현재 적용되는 민간보험의 규칙(경험을 원칙 등)의 변경 필요
- 전국민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게 메드케이 수가 수준으로 지불될 경우, 병원 수익 감소 및 민간보험상품은 더 많이 보상해야 하는 압력 직면

● **또 다른 기관인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보고서⁸⁾에서 미국 보건산업의 신용 상황을 예상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신용도 양호(Credit Positive)로 예상되며, 보험회사, 제약기업은 신용도에 부정적(Credit Negative)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의료기관〉

●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신용도에 긍정적**

- 의료 접근성 제고 정책에 따라 환자수가 증가하며 비보상진료(Uncompensated care)가 감소함에 따라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수가 수준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정책은 병원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 미침

8) Moody's. U.S. Healthcare Industry: Credit Implications of the U.S. Election. November, 2008.

〈민간 의료보험 회사〉

- **보험 회사 및 관리 의료(Managed care) 기업에게 신용도에 부정적**
 - 의료 접근성 제고 정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연방 정부가 보험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의 운용 시 보험사에 대한 지불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산업 정책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산업 공약

- 오바마는 보건의료산업에 특정하여 정책 아젠더를 내놓지는 않았음. 그러나 과학기술(Technology) 아젠더내에서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산업경쟁력 제고(To improve America's Competitiveness) 아젠더
 - 해외에서 미국 산업 활성화 : 외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 및 서비스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무역 정책
 - 과학에 투자 : 10년내 기초연구분야 연방정부 지원 예산의 2배 확충
 - 행정부의 과학적 진실성(Integrity) 회복 : 이념지향적이지 않고, 최적화되고 과학적으로 유효한 증거 기반한 정부의 과학정책 추진
- 과학, 기술 및 혁신 정책
 - 전자 정보기술 투자를 통한 의료비 절감 : 전자의료기록을 포함한 표준화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하는 데 향후 5년간 연 100억달러 투자
 - 의공학분야 연구 선도 : 의공학 분야 투자 및 의료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 줄기세포 연구 선도 :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 예산 지원 확대

현재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Stem Cell funding)

- 현재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는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뉴저지 및 민간자본
 - 캘리포니아 주의 30억달러 연구비 지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임. 그러나 대부분의 줄기세포 연구비는 부속조건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운동단체는 조세지원을 통해 마련된 줄기세포 관련 치료법은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환자들의 해당 치료법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 Health Research Institute., November 2008)

◆ 정책의 시사점 및 산업계의 영향

- Price Waterhouse Coopers의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제약산업에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평가

〈제약 기업〉

- 현재 상황
 - 대형 제약사(Big Pharma)의 사업재구축, R&D 파이프라인 대응, 느린 매출 성장, 제너릭의약품 대체 증가, 증가되는 연구비용
 - 향후 4년내 특허만료에 따른 미국내 추산 60조달러의 브랜드의약품 매출 감소

• 긍정적 요인

- 더 많은 보험 수급자로 의약품수요 증가 및 무상 의약품 제공 캠페인 요구 감소
- 오바마의 R&D 세제 감면 지속 지원
- 오바마의 개인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입법화 및 관련 연구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

• 부정적 요인

- 메디케어와 제약사간 직접 협상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
- **비교 효과성(Comparative Effectiveness)** 도입으로 브랜드의약품 수익 감소 가능. 생물학적 동등성 의약품(Bio-equivalent drug) 채택 요구 증대
- 보험료 상승률 축소 압력으로 의료서비스 혜택(Medical benefit)에 포함되는 특정 약품 소비를, 소비자 비용분담이 높은 약품 혜택(Drug benefit)로 이동 예상

비교 효과성 기구(CEI ; 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

- 오바마 정부가 제언하는 의료의 비교 효과성 기구(CEI)는 여러 가지 진단 및 치료방안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는 기구임. 즉 의료행위 및 약품 등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등을 치료행위 가이드라인, 증거기반 의사결정 툴(Tool)을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임
- 비교 효과성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의사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순응도 제고가 큰 과제임
- 비교 효과성 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미국 의회에 제출되어 있음
 - The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Act, 2008년 7월 상원에서 제언

-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보고서에서는 새정부하에서 제약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 예상
 -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공적 보험에 적용되는 약가에 대해 제약회사와 직접적으로 협상
- 기타 다른 매체에서도 오바마의 정책은 미국 제약산업에 부정적이라 평가
 - 오바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수명(lifespan)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오바마의 보건의료개혁 아젠더 및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Direct-to-consumer advertising)에 대한 규제는 미국 제약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음⁹⁾
 - 오바마 정부는 제약회사와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과의 약가 협상을 시행할 것이며, 캐나다나 다른 국가로부터 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¹⁰⁾ 이런 2가지 정책에 대해 부시대통령은 반대 표명

9) Taylo N. What Obama means for pharma. in-PharmaTechnologist.com 05-Nov-2008.

10) Woellert L. Caterpillar, WellPoint May Win, Delta, Pfizer Lose Under Obama Bloomberg November 4, 2004.

4

결론 및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은 정권 인수과정에서 좀더 구체화되고 액션 플랜이 마련될 것임. 대통령 당선 이후 1개월내 상황으로 각 산업에의 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국 유력 기관에서 예상한 바는 다음과 같음(세부내용은 본문 참조).

표 4-1. 오바마의 보건의료정책의 미국의 각 산업에의 영향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무디스(Moody's)
의료기관	부정적(Negative)	긍정적(Positive)
의료보험회사	부정적(Negative)	부정적(Negative)
제약기업	부정적(Negative)	부정적(Negative)
의료기기기업	N/A	긍정적(Positive)

-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및 제약, 의료기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현재 그 영향이 어떠한 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임.¹¹⁾

11) 1994년 클린턴 1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민건강보험체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등에 의해 추진되지 못했음

- 상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이 보장성 확대와 비용절감 방식을 도모함에 따라, 미국 오리지널 제약사 및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임.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주도의 바이오 및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고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점도 예상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미국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산업에 관한 규제도 강화될 것임. 영국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교 효과성기구(CEI) 설치하고 미국 FDA 개혁 등도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
- 이러한 미국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잠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
 - 의료서비스는 국가 고유의 역사성을 가지므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국가별 의료제도는 상호 학습을 통해 외국 제도가 검토되는 추세이며, 미국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한국에서 검토와 적용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음
 - 의료의 질, 가격 정보의 공개 : 오바마는 대선공약에서 의료기관의 가격, 의료의 질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천명하였음. 현재에도 미국 보건부 주도의 병원간 의료의 질 정보 공개¹²⁾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

격정보 등 포괄적인 의료기관 질과 가격 정보가 공개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확대 정책 검토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 **혁신적 의료제공방식의 도입 검토** :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음. 의료접근성, 지불부담력 등을 고려하는 공급자측 개혁으로 소매 클리닉(Retail Clinics), 비의사의 의료관련 역할 확대 등이 있으며, 보험자측 개혁 방안으로는 Consumer-directed Health Plan 등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의료제공과 지불방식의 개선과 개혁 검토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가속화될 가능성 있음
- **우리나라 의료관광(Medical Tour)에의 영향** :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미국 민간보험사들의 비용절감형 상품의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임. 이에 현재에는 의료관광에 보수적인 미국 보험사들이 해외 진료를 커버하는 상품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미국의 유명 의료보험회사인 Wellpoint는 위스콘신의 인쇄회사인 Serigraph와 인도에서 비급성 수술(Elective Surgery)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어 의료관광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¹³⁾
 -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높은 미국 의료기관의 가격 인하 경쟁을 유

12) www.hospitalcompare.hhs.gov

13) 이 회사는 인도에 오피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는 친숙하며, 본 상품은 의료비와 인도 여행 경비까지 커버하며 일체의 본인부담금이 없는 형태로 개발됨. 본 보험상품 이용자들이 인도에서의 음식관련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미국 의사협회의 의료관광 가이드라인(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uidelines on medical tourism)을 준수하고 JCI(the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받은 의료기관만들 대상으로 함 (자료원 : RONI CARYN RABIN. Insurer Offers Option for Surgery in India New York Times November 21, 2008.)

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겠지만, 민간보험을 가진 미국민들 중에서 제한된 수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즉 예상치 못하는, 의료관광을 통해 큰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음.¹⁴⁾ 이에 국내 의료관광을 통한 환자 진료에서 **대형 의료사고 및 병원 유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관광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 제약산업

- 미국의 공적 보험에서 제너릭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유도될 수 있음
 - **국내 제너릭의약품 제조사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 제너릭 의약품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게는 유리한 미국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제너릭 의약품의 경우에도 인도 등 제네릭 의약품 수출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함
 - **미국에서 오리지널 처방의약품 수입 허용 시 영향** : 오바마 정부는 미국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30% 이상 높으며, 캐나다 등 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미국에서 처방의약품 수입이 허용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국가간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를 유사하게 맞추는 가격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약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할 수 없지만, 외국 오리지널 약가의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음

14) New York Times 앞기사

- 의약품 등의 경제성 평가 역할 강화 : 미국의 비용효과성 기구(CEI) 설립 등 공적 보험에서 경제성 평가가 역할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경제성 평가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강화될 수 있는 사례로 미국의 제도 변화가 인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 미국민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 소모품, 치료재료 등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
 - 국내 병원용 의료기기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 현재 대미 수출이 큰 품목인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의료용 프로프, 혈당측정검사지, 치과용 임플란트, 주사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예상되므로, 중국 등 경쟁국가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가능성 확대 :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의료정보 투자 계획에 따라, 미국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 수요 확대가 예상됨. PACS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대미 진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자료 작성 : 정책개발단 이근찬 책임연구원

본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TEL : 02-2194-7456, E-mail : frontier@khidi.or.kr